

군산시, 주민주도 자원순환실천마을 사업 추진

고군산군도 무녀1구 마을 최초로 체류형 관광 환경 조성 기반시설 설치로 실시계획 진행 중이며 10월 완공 예정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무녀1구 마을에 최초로 자원순환실천마을을 조성해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체류형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실천마을 조성사업'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 교육과 마을리더 육성을 통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을 유도해 나가는 사업을 말하며 현재 무녀도 자원순환 실천마을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계획을 진행 중으로 10월에는 완공

될 예정이다.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마을리더 및 부녀회를 통해 운영해 나가며 분리배출한 캔과 유리병 등을 모아 판매해 마을기금을 마련할 수가 있어 자원의 재활용뿐만 아니라 마을의 수익 창출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자원순환실천마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26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직원들과 합

께 무녀1구 사당방에서 20여명의 마을주민들에게 비닐·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분리배출 요령 생활 속 폐기물 감량 방법에 대한 세부교육을 실시했다. 무녀1구 부녀회장은 "분리배출 방법을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자세하게 알게 됐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분리배출을 추진해 청정 무녀1구가 될 수 있도록 마을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 진희병 자원순환과장은 "무녀1구가 자원순환실천마을로서 고군산지역의 자원 재활용 선도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폭염 피해예방 체육활동 자제 홍보

군산시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더위 휴식시간제란 폭염특보 발효 시 하루 중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야외 체육활동 및 행사를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한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체육시설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국체전 성공개최 위한 익산시-코리아안서포터즈 MOU 체결

2018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 개최지인 익산시가 지난 27일 익산시청에서 사단법인 국제문화진흥협회 코리아안서포터즈(총재 문상주)와 2018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주 개최지인 익산시가 지난 27일 익산시청에서 사단법인 국제문화진흥협회의 코리아안서포터즈와 2018 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리아안서포터즈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전국 규모로 결성, 시민단체·직능단체·교육 등 2,000여 개 단체로 구성된 10만여 명의 회원들을 두고 있는 단체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 대회를 비롯하여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외국 선수단 환영행사에 앞장서는 등 적극 활동한 바 있다. 대회의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코리아안서포터즈는 전국장애인체전의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대회의 성공개최에 일조하고, 특히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팀 참가를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계획이다. 문상주 총재는 "그동안 세계 평화와 더불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보고자 국제 대회에서 주로 활동해왔지만 국민의 결속을 다지는 것이 우리 서포

터즈의 가장 근본적인 결성 배경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에 이어 이번 제99회 전국체전에서 또 한 번의 한민족이 화합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북한 팀 참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위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코리아안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에 마음이 든든하다"며 "이번 전국체전에 꼭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북한 팀의 참가가 이루어져 반드시 통일체전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99회 전국체전(2018.10.12~18)과 제38회 전국장애인체전(2018.10.25~29)은 주 개최지인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개·폐회식을 갖고 익산시를 포함 14개시·군 70개 경기장에서 분산하여 경기를 치른다. /익산=우병희기자

'행복도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제5회 임시회 열어

행복도시 군산시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제5회 임시회를 나문동에 소재한 육이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지난 28일 열린 이번 임시회는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을 위한 예산교육을 실시해 전반적인 시 예산 및 어린이 행복 예산을 이해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알고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이 알아야 할 예산 이야기, 참여예산제의 이해 및 어린이·청소년의원으로서의 참여방법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시의 실행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다. 또 참여예산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관련된 사업과 예산에 대해 배우고 직접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밖에도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밤갯 아동권리 광장 역사의 길 조성을 위해 군산의 역사에 대한 이해 시간을 갖고 역사의 길에 새겨질 주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이 직접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어린이·청소년의원들이 참여예산 교육을 통해 군산시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표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예산 요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창의적인 참여 예산 활동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

산자부 고시개정 이끌어내는 성과 이뤄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 우수사례 전파와 우수 지자체 포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지자체 87개 팀 중에서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팀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군산시는 법령개정으로 국가2산단 우수자에 국내최대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유지한 사례를 발표했다. 본 사업은 군산시와 피앤디솔라(공동대표 나정석)가 국가2산단 내 우수자에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시는 사업 경쟁력 확보에 규제로 작용하던 산자부 고시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으며 그로 인해 연 7천 가구에 전기 공급이 가능한 국내 최

대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해 지난 7월 16일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갔다. 피앤디솔라 나정석 공동대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군산시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군산시의 규제혁신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유치에 저해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군산시는 시상금 5천만 원을 수여받게 됐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선정돼 국비 33억원 확보

익산시가 국·도·시비 공모사업인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에 선정돼 쌀산량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은 미국종합차리지장(RFC)을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익산시가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33억 7천4백만원, 도비 89억 2천만원 등 총 122억 9천4백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로써 미국종합차리지장 2개소에 저장 시설(쌀로 50톤, 167)과 투근구(30톤 37) 건조시설(건조기 30톤 147) 등을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량의 수매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됐으며, 수확기 장기간 대기로 인한 민원해소 및 이윤저조로 인한 원료곡 변질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시, 업무효율성 위한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을 도입,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이란 직장인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된 해외 선진 기업복지 서비스이다. 익산시는 (주)인공과 함께 EAP서비스를 운영해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안정을 통해 업무 몰입도 증대 효과를 제고시키는 방안이다. EAP서비스는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및 가정 부문과 생활규범법률, 세무, 재무 등까지 다양한 범위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익산 수박, 일본 첫 수출길 올라

익산 수박이 일본으로 첫 수출되면서 익산 지역 농산물의 해외시장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 수박은 망성 용동 용안 등 80개 농가에서 약 30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대형마트, 유통업체 및 도매시장 등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익산시는 조생종 배와 멜론 수출에 이어 국내 시장에 한정된 수박의 판로 개척과 농가의 소득을 위해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농업인과 함께

협업해 이번 일본 시장 수출을 추진했다. 이번에 수출되는 수박은 13톤이며 익산원예농협 공산출하회 농민들이 생산한 것으로 이듬해부터 점차 수출량을 늘려 일본 시장에서 익산 수박의 수출 판로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출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일본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농가의 소득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수박뿐만 아니라 타 작물의 해외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